

[현대 기록학의 이론과 사상 - 2018년 3월 18일 단톡방 보강 수업 내용]

2018년 3월 18일 오후 8:05, 노명환 교수님 : 앞에서 구성주의 이론을 생각해 보라 했고,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을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에피스테메가 무엇인 것 같아요. 시대의 가치, 시대의 패러다임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기록화(documentation)란 무엇인 것 같아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06, 노명환 교수님 : OMEKA로 9.11을 세월호 사건을 기록화 했고, 하고 있어요. 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06, 이해란 : 푸코의 부분에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세계관이 에피스테메 아닌가여?

2018년 3월 18일 오후 8:07, 노명환 교수님 :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에피스테메란 그 시대의 집단 가치체계.

2018년 3월 18일 오후 8:08, 이해란 : omeka 자체는 이용자들이 기록의 큐레이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09, 노명환 교수님 : OMEKA를 사용하면 에피스테메를 자동적으로 담을 수 있는가요? 그러면 한스 봄스가 말하는 시대의 가치를 기록화한다는 것은 에피스테메를 기록화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9.11과 세월호에서 에피스테메는?

2018년 3월 18일 오후 8:10, 노명환 교수님 : 기록화하는 사람들 환경도 현재 에피스테메의 일부.

2018년 3월 18일 오후 8:11, 박시현 : 에피스테메는 사람들이 환경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관념적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시대의 가치는 사람마다 달라질텐데, 기록화는 각각이 적어내리는 에피스테메일 수 있겠네요. 그 각각의 정의를 종합하는 것이 기록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OMEKA는 이를 위한 도구인 것 같고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12, 이해란 : 각각의 정의를 종합하는 기록화에도 에피스테메의 영향이 미치지않을까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13, 노명환 교수님 : 박시현, 넘 좋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 가게. 어느덧 추상적이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푸코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젠킨슨 시대에 젠킨슨의 이론에 따르면 OMEKA 사용이 가능할까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13, 노명환 교수님 : 이해란, 그러면 봄스의 입장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2018년 3월 18일 오후 8:14, 박시현 : OMEKA의 기능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ZOTERO 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웹사이트를 있는 그대로 캡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획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을 위해 기록전문가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15, 노명환 교수님 : 좋고. 무엇을 어떻게 캡처할 것인가? 우리의 관점이 작용하겠고.

2018년 3월 18일 오후 8:16, 노명환 교수님 : 그런데 웹사이트에서 캡처할 때의 불안함, 즉 가짜 뉴스를 캡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지?

2018년 3월 18일 오후 8:17, 노명환 교수님 : 아키비스트는 인간과 사회의 폭넓은 관점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고.

2018년 3월 18일 오후 8:17, 이해란 : 한스봄스의 "아키비스트는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쉽지않고, 가짜 뉴스를 구별해낼수 있는 능력이 아키비스트에게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17, 박시현 : 9.11과 세월호같은 사회적 재난에서 비롯된 에피스테메는, 여러 층위의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두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려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 에피스테메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찌면 가짜뉴스와 같은 개념일수도 있겠습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17, 회원님 : 공론장과 같은 검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18, 노명환 교수님 : 그런데 가짜 뉴스를 일일이 아키비스트가 골라낼 수는 없잖아. 아키비스트의 전문성과 기술이 접목되어야 할 것 같고. 나는 디지털포렌식 혹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면 하는 생각을 하고.

2018년 3월 18일 오후 8:19, 박시현 :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짜 뉴스를 캡처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획득을 주저하기보다, 오히려 많은 것을 획득하여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19, 심은경 : 아키비스트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여러 언론사들과 협력해 크로스 체크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19, 이해란 : 저도 요즘 대두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록에 접목된다면 그런부분을 보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20, 노명환 교수님 :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공론장의 대화가 필요하고.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의사소통 플랫폼처럼.

2018년 3월 18일 오후 8:21, 박시현 :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의 정보는 중요한 것을 가려낼 수 없게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접근점이나 검색도구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21, 노명환 교수님 : 우리 이렇게 대화하니 참 좋으네. 수업에서는 일방적이었는데, 단독방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활발히 대화할 수 있을까? 독일의 의사소통 플랫폼이 이렇까? 교수의 지배적인 위치를 뺀다면.

2018년 3월 18일 오후 8:22, 노명환 교수님 : 박시현의 그 고민이 Terry Cook의 고민, 기능평가의 이유, 컨티뉴엄 이론가들의 고민. 앞으로 공부하게.

2018년 3월 18일 오후 8:22, 박시현 : 네, 교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23, 이해란 : 너무 많은양의 정보가 중요한 것을 가려낼 수 없지만 많은 것을 제공하고 그 중 이용자(아카이브이용자)에게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23, 이해란 :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공부하도록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23, 노명환 교수님 : 심은경의 언론사 체크 아이디어 엄청 좋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데이터 단독방의 박대민 선생님이 하시는 빅카인즈에 대한 관심이 크고.

2018년 3월 18일 오후 8:24, 심은경 : 감사합니다 교수님. 헤란 선생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시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24, 노명환 교수님 : 이해란이 말하는 것, 소셜 큐레이션에 대해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데, 엄청 중요하고.

2018년 3월 18일 오후 8:25, 노명환 교수님 : 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아카이브 시스템

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2018년 3월 18일 오후 8:25, 이해란 :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상세한설명을 듣고싶습니다.

ㅈㅈ

2018년 3월 18일 오후 8:25, 노명환 교수님 : 독일의 의사소통 플랫폼처럼. 차후 더 이야기 해볼게.

2018년 3월 18일 오후 8:26, 박시현 : 큐레이션의 개념이었군요! 아카이브 큐레이션이 이루어 지는 예시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28, 노명환 교수님 : 일단 그러면 봄스가 말하는 시대의 가치를 우리는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과 연결하여 생각하는데 어려움 없는 거지? 앞으로 더 많이 공부 하는 것 전제하고. OMEKA의 활용이란 이러한 공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 전문가와 함께 그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

2018년 3월 18일 오후 8:29, 노명환 교수님 : 데이터 단독방의 목적이 데이터 거버넌스와 큐 레이션인데. 우리 수업에서도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하기로 하고.

2018년 3월 18일 오후 8:30, 노명환 교수님 : 토마스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도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을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에피스테메가 바뀌는 것, 시대의 가치체계가 바뀌는 것.

2018년 3월 18일 오후 8:30, Psh : 기록관리와 활용의 측면에서 오메카 기능을 받아들일때.. 주의해야할 점들이있을까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31, 심서영 : 에피스테메가 곧 패러다임이라고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을까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32, 노명환 교수님 : 음, 아까 이야기 한대로, 가짜뉴스, 데이터 문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정리 기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의 중요 임무. 오메카가 해결해 주지 않음.

2018년 3월 18일 오후 8:32, 이해란 : 오메카는 제가 생각하기에 보존아카이브+서비스아카이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오메카 주의점은 없지않을까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33, 이해란 : 오메카는 매개체일뿐..

2018년 3월 18일 오후 8:33, 노명환 교수님 : 심서영 문제의식 넘 좋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 해서 쿤의 패러다임 개념과 에피스테메를 구분해 보게. Documentation Plan과 Strategy 를 공부해야 하는데.

2018년 3월 18일 오후 8:35, 노명환 교수님 : Documentation Plan과 Strategy 가 젠킨슨 관점에 따를 때 불가능하지 않나? 왜 지금은 이렇게 하지? 에피스테메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2018년 3월 18일 오후 8:35, 심은경 : 개인적으로는 에피스테메가 패러다임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쿤은 패러다임은 하나의 용어로 정의하기 쉽지 않고 사회학적, 구조적 등의 측면에서 정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피스테메의 영향과 그 안에서 사회적 구성원들 간에 패러다임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37, 노명환 교수님 : 심은경, 엄청 좋고. 앞으로 이 부분을 공부하게. 이쯤에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성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까? 구성주의가 무엇이지?

2018년 3월 18일 오후 8:37, 안소연 : 정체성이 구조와 행위자 사이에서 상호 구성된다는 관점의 이론입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39, 이해란 : 본질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39, 노명환 교수님 : 그러면 일단 정체성은 고정불변이라고 보는 본질주의와 대립되네. 앞으로 더 공부하기로 하고. 아키비스트와 기록의 상호 작용의 기록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도큐멘테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2018년 3월 18일 오후 8:40, 노명환 교수님 : 젠킨슨을 본질주의, 붐스를 구성주의 이렇게 볼 수 있을까?

2018년 3월 18일 오후 8:41, 심은경 : 넵.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41, 박시현 : 젠킨슨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획득해야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술적,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시대적인 변화를 받아들여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구성주의는 구성요소를 혼합하여 전체를 인식해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란 선생님께서 말씀대로 본질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맞겠지요. 저는 젠킨슨을 본질주의, 붐스를 구성주의에 대응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41, 노명환 교수님 : 이렇게 생각해 가면 우리는 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 기록은 무엇인가? 기록관리 행위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은가?

2018년 3월 18일 오후 8:42, 회원님 : 네~ 기록의 가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달라지며 사유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43, 노명환 교수님 :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Terry Cook 교수는 자신은 젠킨슨으로부터 시작해서 붐스를 만나 위의 최민이 선생이 말하는 관점에 도달했다고 말해. 2010년부터 나와 개인적으로 많은 교류를 했는데.

2018년 3월 18일 오후 8:44, 노명환 교수님 : 앞으로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 다시 드는 문제, 객관성의 문제. 이는 철저한 소통을 해야한다는 관점과 연결되고.

2018년 3월 18일 오후 8:45, 박시현 : 아키비스트는 과거와 달리 위로부터의 일방적 관점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관점을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은 다양한 관점의 과정이면서 결과일 수 있고, 기록관리는 이를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보존하고 활용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45, 이혜란 : 저는 쿡이나 붐스의 관점에서 누구나 아키비스트가 될 수 있고 기록또한 광범위한 범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전문적인 아키비스트가 되고싶은 사람으로서 다양한 범위에 기록화에 대한 연구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46, 안소연 : 네~ 철저한 소통을 위해서는 아키비스트가 앞서 논의했던 에피스테메를 이해하고 사회와 문화 및 역사에 대해 잘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46, 박시현 : 절대적 객관성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47, 심서영 : 시현쌤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에피스테메와 패러다임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기록관리는 시대적인 인식과 담론의 변화에 맞추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이슈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51, 안다영 : 선생님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양한 관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플랫폼을 활용하는건 어떨까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8:52, 노명환 교수님 : 누구나 아키비스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환경도 우리 전문 아키비스트가 만들어 주어야지. 누구나 아키비스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할 때, 사실 전문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커지는 것. 다만

그 전문성이 풍부하고 깊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인간과 사회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우리 기록인들이 에피스테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노력이 그동안 '발로쓰는 기록' 동아리에서 추구했고. 나는 양재찬선생님의 글을 카페에 올려달라 했고. 작은 노력. 앞으로 더 생각하고 추구해 보게. 커다란 단독방 활동도 일종의 플랫폼, 그런 것이고.

2018년 3월 18일 오후 8:53, 노명환 교수님 : 기록의 컨티뉴엄 이론에 의거한 이해, 활용에 대한 정당화 등이 여러 이론에서 가능하게 되는구나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론 공부의 필요하구나 싶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이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해야 하겠는데, 현대 기록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2018년 3월 18일 오후 8:55, 노명환 교수님 : 예를 들어,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국가아카이브가 공격받고, 내가 직접 관련이 있는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가치가 크게 강조되는데? 무슨 뜻?

2018년 3월 18일 오후 8:55, 박세훈 :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은 각자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방될수 있다는 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56, 이해란 : 저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기존의 이념을 뒤바꿀 수 있는 개념인것 같습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56, 심은경 : 모더니즘은 이성에 대한 믿음, 합리주의를 추구했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극단적인 양극화, 이성과 감정, 흑인과 백인의 이분법을 해체시켜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엘리트 중심의 아카이브보다는 개인의 기록이 강조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8:56, 노명환 교수님 : 그러면 사회의 통일성 안정성 및 질서는 어떻게 추구하지?

2018년 3월 18일 오후 8:59, 박세훈 :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룰을 형성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다양성과 주관성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9:00, 심은경 :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이 생산된다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록화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님의 논문에 언급된 기록의 정의에 대한 다양화, 일방이 아닌 소통의 기록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구요.

2018년 3월 18일 오후 9:00, 회원님 : 공론장에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9:01, 이해란 : 사회의 통일성과 안전성 질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공동체의 소통과 협의 합의에 의해서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9:01, 이해란 : 너무어렵네요 교수님... ㅎㅎ

2018년 3월 18일 오후 9:02, 노명환 교수님 : 박세훈의 답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해란이 말처럼 모더니즘에 대한 궁극적 반성으로 시작해 보게. 심은경 님 좋고. 30일에 총체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고, 23일에는 광주에 가는데 광주 5.18 기록관을 소재로, 그리고 당시의 현장을 경관아카이브 (Landscape archive)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고, 기록관을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문화의 매개로 생각해 볼 것인데. 사정상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워크숍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겠고. 공론장의 소통을 이어가게.

2018년 3월 18일 오후 9:02, 박시현 :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라는 의미로,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사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집단보다는 개인과 작은 공동체가 주목되는 시대 분위기이지요.

이전 시대의 사회의 통일, 안정, 질서가 국가 차원에서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의 질서는 내부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질서에 대한 필요성, 이로부터 도출

되는 그들 사이의 합의와 예의가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9:05, 노명환 교수님 : 다양성, 공론장,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질서, 안정성 등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논의하게. 우리 수업 엄청 좋고 .다시 연락할께. 오늘 수고 많았고. 앞으로 소개하는 글들 잘 읽어주고. 이정연선생님 콘텐츠 문화산업 잘 읽어주고. 이 시대의 진정한 아키비스트들 !!!!!